◈ 1강: 버클리 vs 들뢰즈 - `타자`에 대하여 ◈

"인간 존재는 인정받고자 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인되기를 원한다. 인간 존재는 존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때로 자신을 부인하기도 하는 타자를 향해 나아간다. 그 결과 인간 존재는 자신이 될 수 없다는, 즉 자기 또는 분리된 개인으로서는 존속할 수 없다는 불가능성을 의식하게 만드는, 상실의 체험 속에서 존재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인간 존재는 자신을 항상 미리 주어진 외재성으로, 여기저기 갈라진 실존으로 체험하게 된다."
-블랑쇼(M. Blanchot), 『밝힐 수 없는 공동체(La communauté inavouable)』

1. 세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절대적 타자

◈ 그가 감각을 통해 지각하는 것을 그는 실재적으로 존재자라고 칭하네. 그리고 그것은 있다고 혹은 존재한다고 말하네. 그러나 지각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존재를 갖지 않는다고 말하네. (...) 기독교도에게는 확실히 그의 정신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실재적인 나무가 참으로 신의 무한한 정신에 의해 인식되고 파악된다는 주장이 충격적일 리가 없네.
-『하일라스와 필로누스 사이의 세 가지 대화(Three Dialogues between Hylas and Philonous)』

▶ 강의실에 들어오기 이전 건물 바깥에서 내가 지각했던 자동차는 그 순간 존재했었다. "지각되는 것은 존재하는 것(Esse est percipi)"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의실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지각할 수 없게 된 그 자동차는 그렇다면 현재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이 경우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그것을 지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지각하지 않을 때 자동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물 바깥으로 다시 나가서 자동차를 지각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처음 내가 자동차를 지각했을 때와 지금 자동차를 지각하고 있을 때, 두 시간 사이에 동일한 자동차가 존재했던 것인지는 여전히 확인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내가 강의실에 들어와 있는 동안 자동차는 존재했던 것일까? 바로 이 대목에서 버클리의 재주넘기가 시작된다. 현재 내가 지각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는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각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로 정리된 경험론적 원칙은 그는 이제 폐기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내가 지각하지 않고 있는 자동차를 지각하는 존재만 있으면 버클리의 원칙은 폐기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지각하지 않는 것

을 지각하는 그 존재란 과연 누구일까? 버클리는 그가 바로 절대자이면서 초월자인 신이라고 이야기한다. 결국 신을 믿으면 우리는 존재에 대한 불안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버클리의 근본적인 입장이었다. 신은 모든 것을 언제나 동시에 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만약 신을 타자로 바꾼다면, 우리는 타자가 자신의 조각난 세계, 혹은 불안한 세계를 메워 주는 존재라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내가 지금 특정한 어떤 것을 보느라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해도, 다른 타인은 나를 대신해 그것들을 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 지각의 불완전성 혹은 유한성은 결국 타인 혹은 더 나아가 절대적 신의 지각에 의해 완전하게 보완된다고 볼 수 있다.

2. 가능세계로서의 상대적 타자

◈ 타자는 나의 의식이 필연적으로 "나는 ~였다" 속에서, 즉 더 이상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 하나의 과거 속에서 흔들리게 만든다. 타자가 나타나기 전에 예컨대 어떤 안정된 세계가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과 구분하지 못했다. 타자는 하나의 위협적인 세계의 가능성을 표현하면서 등장하며, 이 세계는 타자 없이는 펼쳐지지 못한다. 나? 나는 나의 과거 대상들이며, 나의 자아는 바로 타자가 나타나게 만든 한 과거의 세계에 의해 형성되었을 뿐이다. 타자가 가능 세계라면 나는 과거의 한 세계이다.
-『의미의 논리(Logique du sens)』

▶ 비트겐슈타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타자는 나와 삶의 규칙이 다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타자와 마주쳤을 때 나는 낯섦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는 내가 보기에 그는 심하게 느끼한 이탈리안 파스타를 좋아한다. 이 순간 나는 내 자신이 얼큰한 음식을 좋아했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단지 음식만 그렇게 낯설겠는가? 정치적인 입장, 미적인 취향, 성적인 자극 등, 나는 타자와의 사이에서 너무도 큰 차이를 직감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타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만나려고 할 때 발생한다. 이 경우 나는 과거 자신이 살았던 안정된 세계를 자각하며, 동시에 타자를 "하나의 위협적인 세계의 가능성"으로 직감하게 될 것이다. 만약 내가 변한다면, 그것은 내가 타자와의 마주침과 그로부터 야기되는 새로운 배치(agencement)를 실현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경우 지금까지 내가 영위해 온 삶의 규칙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된다. 들뢰즈가 "타자가 가능 세계라면 나는 과거의 한 세계이다"라고 결론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타자가 없다면 나는 과거의 한 시점에 매몰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